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오늘 일요일 밤 시분 다큐온 에서는
디엠지 에는 사람이 산다 다니엘과 대니의 특별한 여행 이 방송된다



코로나 팬데믹의 해이자 한국전쟁 주년이 되는 해였던 년 이 역사적인 해의 끝자
락에 특별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

한국 거주 년 차 다니엘 튜더 한국 거주 년 차 대니 지로 전 이코노미스트 기
자이자 작가 사업가인 다니엘과 그의 영국인 친구 대니다 두 명의 영국인이 세계에서 유
일한 분단국인 한국 그 분단의 상징인 로 떠난다

의 서쪽 끝 강화도에서 출발해 동쪽 끝인 강원도 고성까지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의 길을 따라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배우고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자연을 경험하며 사람들을 만나다 두 외국인의 눈에 비친 는 어떤 모습일까 분단의 아픔을 넘어서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엔 어떤 사람들이 살까

는 정전협정 이후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지점에 만들어진 폭 길이 에 달하는 비무장지대 를 말한다 남한에선 의 남방한 계선 지점에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두어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했고 년대부터 이곳에 농토를 개간하고 잘사는 남한의 모습을 북한에 알리기 위해 민북마을로 불리는 전략촌을 건설했다

년부터는 이 민통선이 킬로미터로 줄었지만 이 민간인출입통제선 부근 접 경지대엔 실향민과 대대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 전략촌으로 이주해 평생을 살아 온 이주민들과 최근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강화보다 연백이 가까웠던 교동도 대룡시장에서 실향민을 만나다

여행의 출발지는 의 서쪽 끝인 교동도이다 교동도는 전쟁 때 황해도 연백에서 내려 온 피난민이 많아 실향민의 섬이라 불린다 연백과 교동은 썰물 때면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 전쟁 전 교동 사람들은 변화한 연백장을 보러 연백으로 가곤했다 실향민들이 그 연백장을 본떠 만든 것이 바로 교동도 대룡시장이다 교동도가 민통선 내에 편입되고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는 바람에 대룡시장은 년대의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명물 시장이 됐다 시간이 멈춘 듯한 대룡시장에서 다니엘과 대니는 이북음식도 맛보고 실향민 할아버지들의 아픈 사연도 듣는다

전쟁과 분단의 현장 파주



일대를 도보여행지로 만든 평화누리길 김포 철책선을 걸으며 분단의 현실을 눈으로 본 다니엘과 대니가 온 곳은 파주 임진각이다 개성까지 불과 떨어진 이곳에서 전쟁 당시 폭격으로 끊어진 임진강철교와 년 전 맞았던 개의 총탄을 상흔으로 간직한 채 서 있는 장단역 증기기관차를 만난다

눈앞에 보이는 전쟁과 분단의 현장이다 임진각 바로 옆에는 캠프 그리브스가 있다

년부터 년까지 실제 미군이 주둔하던 막사를 전시장과 숙박시설로 바꾼 곳이다 거리에 북한 땅이 있는 민통선 내에서도 최북단 지점 두 사람은 이곳에서 직접 요리도 하고 군대 내무반을 그대로 재현한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는다

세계지질공원 한탄강에서 부자 어부를 만나다



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존된 곳이다 1년 가까이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탓에 아름다운 자연과 멸종 위기의 동식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도 그중의 하나다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 사이로 흐르는 투명한 에메랄드빛 강물은 장관이다 그 한탄강 절벽 위에 사는 어부 유기환 씨 가족이다

아버지가 평안북도 실향민인 유기환 씨는 연천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다 한탄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매운탕을 끓여내며 살아온 어부 유기환 씨의 삶은 지금 아들 흥용 씨에게 이어진다 다니엘과 대니가 유기환 씨의 배에 올라 어부의 삶을 들여다본다 쏘가리 메기부터 밥도둑이라 불리는 참게까지 한탄강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로 만든 매운탕을 맛본다

두루미의 고장 철원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보다



의 중심부 철원이다 지금은 오대쌀로 유명한 철원평야가 있는 곳이자 가장 많은 민북마을이 있는 곳이다 노동당사와 근대문화 유적 등 일제강점기부터 전쟁과 분단 이후의 역사를 간직한 유적도 많다 그리고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바로 두루미다 해마다 가을이면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인 두루미 수천 마리가 철원으로 날아온다 철원이 이처럼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이자 탐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민통선 지역이라 사람들의 통행이 적고 철원평야에서 떨어진 낙곡들이 좋은 먹이가 됐기 때문이다 다니엘과 대니가 9년에 민통선마을에서 해제된 철원 양지리를 찾아 두루미를 만난다 하늘을 뒤덮은 철새 떼 논에서 낙곡을 쪼아 먹는 두루미들의 우아한 모습에 감탄을 연발한다 철원에서 만난 것은 전쟁과 분단을 넘어 사람과 자연이 만들어낸 공존의 모습이다



양구 편치볼 시래기 농부와의 하룻밤

화재 그릇을 닦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편치볼 양구 편치볼은 한국전쟁 당시 피로 물들었던 격전지 중 하나다 지금은 시래기로 유명한 이곳에서 두 영국인이 젊은 시래기 농부를 만난다 전직 가수였으나 성대결절로 노래를 포기하고 1년 전 양구로 이주해 시래기 농사를 짓는 김현욱 씨 부부이다 김현욱 씨 부부와 시래기 수확체험을 한 다니엘과 대니는 김현욱 씨 집에서 저녁 대접을 받는다

영화 찍는 마을 서화리에서 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

북한 내금강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인제 최북단 마을 서화리는 1950년 전략촌으로 입주를 시작했던 곳이다 이곳에 영화감독 신지승 씨 부부가 들어오면서 서화리는 영화 찍는 마을이 됐다 마을 주민들이 주인공이자 관객이고 보여주는 것보다 찍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영화다 여행객인 다니엘과 대니도 얼떨결에 배우가 되어 마을 사람들과 춤을 추며 영화를 찍는다

금강산과 동해의 비경 고성 통일전망대

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이어진 의 여정 마지막 여정은 바로 고성 통일 전망대다 전망대에 올라선 다니엘과 대니의 눈앞에 금강산의 마지막 봉우리인 구선봉과 동해가 만들어낸 비경이 펼쳐진다 남북의 경계 없이 철조망도 자유로이 넘나드는 새와 바닷물결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는다



다큐온 기본정보 격변의 시대 거품처럼 쉽 없이 일어나는 새로운 현상들에 머리가 어지럽다 하지만 변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변치 않는 화두다 핵심은 변화의 방향 현상들 속에서 시대를 선도할 주된 흐름은 무엇이고 지켜야할 가치는 무엇일까 다크온 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온: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식영상 회차정보 등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방송시간은 매주 금요일 밤 시 분 시 분 토요일 밤 시 분 시 분이다

